

# 지난날 우리들 지성사의 흐름

## 유신세대의 청년기 독서편력

손호철

전남대 정외과 교수

70년대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10월 유신이다.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숨막히는 '억압기' 중의 하나인 유신시대에 대한 생활을 보낸 '유신세대'는 이제 어느덧 40대 중초반으로부터 30대 중초반이 되어 한국사회의 중간 '허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유신시절에 대학을 다닌 세대를 유신세대로 이해할 경우 69년에 대학을 입학한 69학번으로부터 79학년까지, 즉 크게 보아 70년대 학번들을 유신세대라고 볼 수 있으나 재학중 군복무후 복학하여 유신을 맞은 사람들, 유신시절 대학을 졸업했으나 후배들과 직접적 관계로 인해 피해를 본 유신시절 학생운동관련 피해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신세대는 65학번으로까지 거슬러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유신세대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제 시간이 흘러 우리사회의 '중간세대'로서, '허리'로서 자리잡았다. 특히 이들이 겪은 질식할 것과 같은 유신억압정치의 경험과 이에 저항한 반독재투쟁의 경험은 유신세대를 각계, 각분야에서 우리사회의 진보적 진영에 상대적으로 많이 자리잡도록 만들었다. 또한 진보진영역사의 상대적 일천함으로 인해 유신세대는 각 분야에서 진보진영의 '중견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선 정계만 하더라도 '유신시대의 사형수'의 이미지로 일찍이 정계에 진출, 자리를 잡은 이철의원, 평민연 재야입당파로 13대의회에 진출, 최고의정활동의원의 평가를 받은 이해찬의원을 비롯하여 이번 총선에서 새로 원내진입에 성공한 제정구, 유인태, 박계동, 신계륜, 원혜영, 장영달 당선자 등이 유신세대로 제도정치권내의 '진보블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한 민중당 역시 장기표, 김문수씨 등 유신세대가 지도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언론계의 경우 기자협회장을 지낸 이근성 월간중앙기자와 한겨레신문의 이원섭 정치부장, 윤후상 경제부장, 김효순 주일특파원 등이, 학계의 경우 서울대 김세균(정치학), 인하대 김대환(경제학), 성균관대 서중석(한국사) 등이, 법조계의 경우 고조영래 변호사 등이, 출판계의 경우 나병식 풀빛사 대표 등이, 재야운동의 경우 김근태, 김승호 전노운동의장, 최열 공해추방운동연합공동의장 등이

유신세대로서 각 분야에서 진보진영의 중견세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사적 시각에서 볼 때 유신세대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반파쇼민주화를 지향하는 시민민주주의변혁론(CDR)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시기였다. 즉 한국사회의 1980년대의 운동이 '정통의 복원'과 마르크스주의의 시대였다면 1970년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러시아의 브나르도운동식의 소시민적 포퓰리즘의 시대였다. 물론 70년대의 경우도 남민전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했던 조직운동이 존재했고 자유주의 틀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이론에 대한 학습도 있었지만 운동의 전반적 색조는 외세에 대한 인식도, 억압성의 물적기초에 대한 인식도 사실상 결여된 반유신 내지 반군부독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지성사는 그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다. 또 이같은 지성사의 재구성에서 어떠한 책들이 주로 어떤 시기에 읽혔는가 하는 '독서사'는 아주 의미있는 재료가 된다. 「출판저널」의 이번 특집도 바로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일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약속한 유신세대의 현주소, 유신세대의 운동사적 맥락을 전제로 하여 유신세대가 주로 어떠한 책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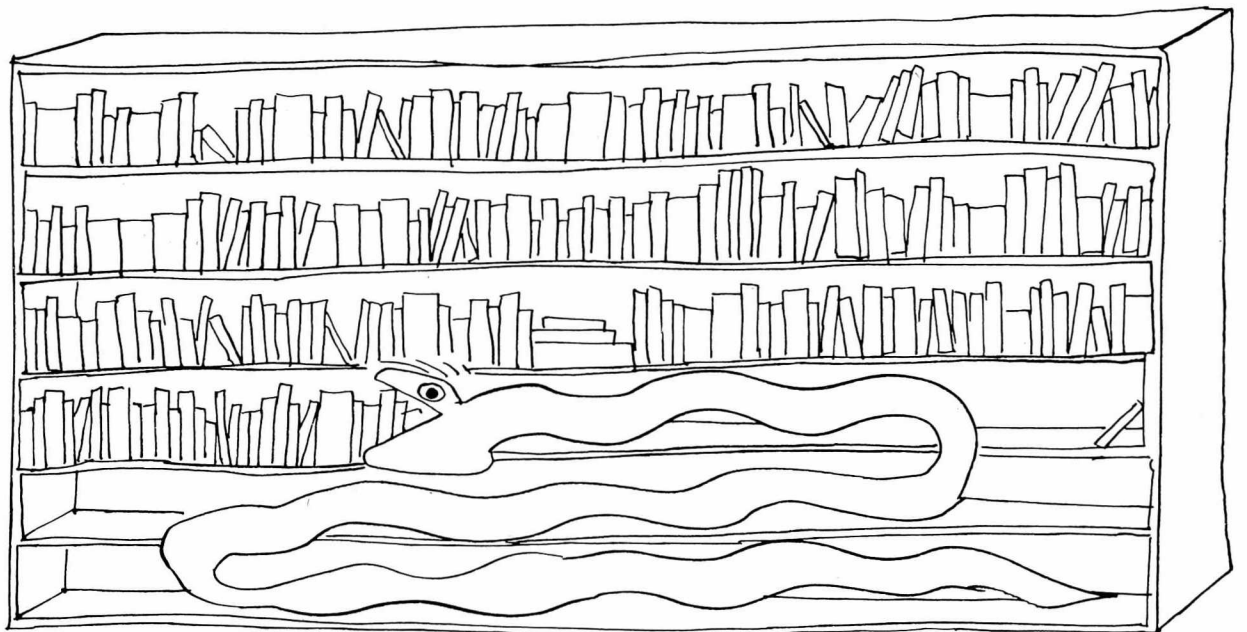
그들의 사고를 형성해갔는가를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유신세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전후한국지식인의 독서경향의 역사적 변천을 조망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출판저널」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고 필자의 경험이 별로 유신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다 유신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자를 골라보는 것이 낫겠다고 대답했었다. 그러나 일단 집필에 응한 이상 필자 개인의 70년대 독서경험을 유신세대 일반의 독서경험과 연관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신시대에 필자가 지낸 개인사적 경험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서울대 정치학과 70학번으로서 70년대 학번으로는 가장 선배급에 속하고 유신세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배급이라고 할 수 있다. 옛서울공대 자리의 교양학부(1학년)시절 교양학부를 겨냥해, 단과대학이 아닌 범서울대학서클로 구성된 유일한 학술서클이었던 '후진국사회연구회'에 포섭(?)되어 빛도 모르고 세칭 '운동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뒤에 소개할 70년대의 '의식화 서적'(물론 현재의 기준으로는 '건전도서'라 할 수 있지만)들을 접하게 되었고 2학년이 되어 문리대 본캠퍼스로 등교를 시작한 뒤 얼마되지 않아 71년 대통령선거를 맞아

학생선거참관인단으로 활동했다.

선거부정을 현장에서 확인한 우리들은 이어 실시할 국회의원선거를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없는 한 보이콧하도록 야당(신민당)에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표 중의 한명으로 신민당을 방문하여 당대표와 화기애애한 가운데 우리의 의사를 전하고 나왔으나 당국에 의해 '신민당사 난입'이라는 해괴한 죄명에 의해 구속, 수감되었다. 다행히 양심적인 판사(후에 사법부정화를 겨냥한 사법부파동의 주대상이 된 양헌부장판사)의 무죄판결로 석방되었고 당시 서울시대 판자촌을 철거시켜 건설한 광주단지(현재의 성남시) 실태조사 등 기층민중과의 '낭만적'인 결합도 시도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위수령조치로 다시 제적되었다. 당시 제적학생들은 강제로 집단 징집을 당하였으나 나이가 안돼 2학년중 제적된 소수의 타대학 학우들과 함께 강제징집조치 못 당하고 실업자로 무의도식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이후 73년 입대 때까지 1년반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나날들로서 군에 입대하지 않고 남아있는 극소수 '잔당'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데모 등 사건만 나면 수사기관에 불러다녀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다만 그 시절을 건널 수 있게 해준 것은 당시 학교에 남은 동기들과 참여한 야학에서 "왜 하느님은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나요?" 하고 물어오던 한 소녀의 정말 티없이 맑은,



그러나 슬픈 노동자와 노동현장, 빈민현장에 '위장취업'한 극소수 선각자적 선배들과의 술자리대화를 통한 '대리만족'이었다. 군복무중 그 유명한 민청학련사건이 터져 동기생들이 사건의 핵심세력으로 무기징역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도 일찍이 제적된 덕분에 이를 피할 수 있었고 역시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것을 실감했다.

76년봄 제대후 복학이 되어 다시 대학을 다녔으나 암울한 유신시대의 캠퍼스, 그것도 장나미 떨어지는 콘크리트의 숲 새 관악캠퍼스를 다녀야 하는 고통 속에서 별로 학교생활이나 후배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기껏해야 대학원에 남은 선배, 동기들과 필자와 같이 위수령 당시 연령부족으로 강제징집도 못 당하다 후에 입대, 복잡한 친구들과 교류하는 채 그럭저럭 대학생활을 마쳤다. 이후 유신시대에 대해서도 채용기준이 너그러웠던 중앙통신(현재의 연합뉴스)에 입사,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며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의 눈을 키우고 젊은 기자들과 조심스럽게 언론민주화에 대해 고민을 하다 10·26에 의한 유신의 종말과 12·12를 겪었다. 12·12는 왜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필자에게 다시 안겨주었고 이에 답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 다음해 미국으로 떠났다. 위의 개인사가 보여주듯이 필자는 저학년시절 캠퍼스를 떠났고 그후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대학시절 체계적인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사실 현재 필자의 학문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 것은 80년대 유학생들과 귀국후의 연구라는 점을 첨가하고 싶다.

이같은 개인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70년대 주로 필자에 영향을 준 주요한 저서들을 기억이 나는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필자가 70년대 읽은 중요한 책들로는 1학년과 2학년초에 읽은 '후진국사회연구회'의 세미나교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세미나는 근대사회의 형성에 관한 기초세미나로서 당시 읽은 책으로는 근대민족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의 문제를 다룬 고최문환교수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프랑크혁명을 계급론적 시각에서 다룬

조르쥬·르페브르(민석홍 역) 「불란서혁명사」, 지식인의 이탈 등 혁명을 징후군적이고 자연사적 측면에서 다룬 크레인 브링턴의 「혁명의 해부」, 역사철학의 문제를 다룬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파시즘을 대중사회론적 시각에서 분석한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이었다. 이밖에 사회주의 관련서적으로는 바부흐로부터 생시몽, 칼 마르크스, 레닌에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70년대 지식인 모두에게 충격을 준 이영희교수의 저서들이다. 그의 「전환시대의 논리」와 「이성과 우상」은 70년대의 지적 편력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저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야학운동과 관련하여 급진적 교육론의 교과서였던 프레리의 「페다고지」를 읽은 것도 이 시기였다.**

이르는 사회주의사상의 전개과정을 인물기식으로 다룬 에드문트 윌슨의 「근대혁명 사상사」와 서재장식용 세계위전집 속에 무언가 잘못(?)되어 들어가 있었던 아이작 도이처의 「스탈린전기」, 신상호, 양호민의 「모택동사상」 등을 고작 읽었을 정도였다.

경제학내지 정치경제학에 관해서는 가장 이론적이었던 상과대학의 '이론경제학회'의 동기생들이 모리스 돕의 「Studies in Development of Capitalism」 등 자본주의이행논쟁을 읽는다는 것을 풍월식으로 얻어들었을 뿐 레오 휴버만의 「Man's Worldly Goods」를 읽었다. 한국사에 대해서는 정채성이론과 당파싸움론 등 식민지사관을 비판한 이기백교수의 「한국사신론」과 홍이섭교수의 글을,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과정을 쉽게 서술한 김성두의 「재벌과 빈곤」을, 운동사로는 김낙중의 「한국노동운동사」를 교재로 읽었다. 이밖에 제3세계 문제로는 레오 휴버만의 쿠바혁명을 다룬 「들어라 양키야」, 조용범교수의 「후진국 경제론」 등을 공부했다. 철학책으로는 허버트

마르크제의 「이성과 혁명」을 김종호교수 번역본으로 끄끙거리며 공부한 기억이 난다.

개인적으로는 원래 미술대학을 진학할 생각이었을 정도로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탓으로 문학계의 순수·참여논쟁과 관련된 평론, 참여론적 문학작품, 그리고 실존주의적 맑시즘 내지 소외론을 중심으로 한 청년마르크스 관련서적을 주로 읽었다. 그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등 사르트르, 앙드레 지드, 앙드레 말로, 메를로 퐁피 논쟁, 시몬느 베이유의 저서들,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후에는 에리히 프롬이 서문을 쓰고 편집한 마르크스의 「Economic & Philosophical Manuscripts」 등이 실려 있는 초기저작집 「Marx's Concept of Man」, 콜라 코프스키, 아담 샬 등의 저서들이었다.

문학작품의 경우 「아시아」지에 연재된 김수영과 선우희의 순수·참여논쟁과 임종국의 「친일문학론」, 김수영의 시, 한국근대사를 다룬 장편서사시 신동엽의 「금강」, 분단과 좌우의 갈등을 다룬 최인훈의 「광장」 「회색인」 등, 김지하의 「황토」와 「오적」 등의 당시, 초기 민중문학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황석영의 단편소설들이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다. 외국문학작품으로는 한 직업적 혁명가의 삶을 그린(한 평론가가 20세기 휴머니즘의 극치라고 표현한)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 등을 주로 읽었다. 이밖에 잡지로는 「창작과 비평」과 「다리」지를 주로 봤다.

제적후 학교에 남은 동기들과 주먹구구식으로 1주일만에 일본어책 읽는법을 배우면서 독서의 폭은 상대적으로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주로 읽고 지적성장에 영향을 준 것은 「암과신서」라는 문고판이었다. 파펜하임의 「근대인의 소외」, 루시엔 골드만의 「인간의 과학과 철학」, 마르티네의 「5개의 공산주의」, 톰슨의 「로베스피에르와 불란서혁명」 등의 번역서와 일본학자들이 쓴 「현대중국사」 「파리코뮌」 등 당시만 해도 상대적으로 외서수입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본책들을 많이 독서했다. 특히 이중 「러시아문학사」의 경우 러시아지식인의 평균수명이 20여세에 불과했다는 것을 읽고 그 지식인 수난사에 충격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70년대 지식인 모두에게 충격을 준 이영희교수의 저서들이다. 이영희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와 「이성과 우상」은 70년대 필자의 지적편력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저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야학운동과 관련하여 급진적 교육론의 교과서였던 프레리의 「Pedagogy」를 읽은 것도 이 시기로 기억된다.

제대후 복잡한 뒤에는 제록스 영인본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여서 영어원서 복사본들을 많이 읽었다. 그 책들은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그중 하나는 폴 바렌의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폴 스위지의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와 「Present as History」 등의 「Monthly Review」 출판사의 진보적 서적들과 하버마스의 「Knowledge & Human Interests」, 아도르노와 호르크 하이머의 「Dialectic of Enlightenment」, 마틴 제이의 「Dialectic Imagination」, 마르크제의 「One Dimensional Man, Counter-Revolution and Revolt」 등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서적들, 에리히 프롬 편저의 청년마르크스 저서, 아담 샬 등의 휴머니즘적 마르크시즘서적들, 루카치의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카우츠키의 「Class Struggle」, 레닌의 「State and Revolution」 등 급시류의 지하 영인본들이었다. 이밖에 A.G. 프랭크의 종속이론 관련저서들의 복사본을 읽고 종속이론에 매료되기도 했다.

이후 졸업후 79년대말까지 기자생활을 했지만 그 기간에도 틈나는 대로 책을 사서 읽곤 했는데 그 기간중에는 안병직 외 「변혁시대의 한국사」, 박현채의 「민중경제론」, 변형운 외 「한국농업문제의 인식」 등 한국현대사를 재조명한 새로운 한국현대사연구의 초기단계 저서들을 주로 보았다.

한마디로 70년대 필자에게 가장 영향을 준 책들로는 외서로는 「Monthly Review」의 저서들과 「암과신서」를, 잡지로는 「창작과 비평」과 일본의 「세계」지를, 문학작품으로는 신동엽의 「금강」과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을, 사상가로서는 「청년마르크스」의 저서들을, 국내사회과학서적으로는 이영희교수의 저서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하겠다.